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사람 중심 도시재생으로 '살고 싶은 동구' 만들겠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안전한 도시를 넘어 누구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동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재선에 성공한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은 10일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힘입어 인구 10만 명 회복과 함께 30~40대 젊은 세대, 청년들의 유입이 늘면서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주거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구청장은 민선 7기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발굴에 앞장 선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 9만4000여 명까지 떨어졌던 동구 인구는 2020년 9월을 기점으로 10만 명까지 늘었다. '살고 싶은 동구'의 꿈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임 구청장은 또 동명동, 서남동 인쇄의 거리, 산수동, 계림동, 지산동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2024년까지 780여억 원을 투입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하면서, 원주민은 물론 전입세대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골목경제 다지고 신산업 육성...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 박차 충장로·금남 지하상가 예술과 문화 입혀 옛 명성 되찾을 것

임 구청장은 민선 7기 4년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공을 들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4년은 '누구나 찾고 싶고 생활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를 기반으로 동구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문도시이자 주민 중심의 생활이 편리한 도시, 마을 공동체 회복으로 정이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생활이 편리한 동구를 위해 주차장 확보 등 기본적인 주거 환경의 개선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임 청장의 설명이다.

임 청장은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안심할 수 있는 안전건강도시 ▲사람중심의 인문도시 등 6대 분야 45개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임 청장은 취임식에서 "주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만큼 우리 동구를 '광주에서 가장 빛나고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민선 8기 구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3대 변화전략도 내놨다. 삶의 가치·도시환경·마을자치의 변화 전략이 그것이다.

임 구청장은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골목경제를 튼튼하게 하며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임청장의 구상이다. 대기업 등 산업단지 없는 지역 특성상 지역경제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고, 인공지능(AI)이 융합된 신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해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충장로와 금남(충금)지하상가를 지하와 지상을 잇는 입체 상가로 조성하고, 예술과 문화, 지속가능한 상권 등 3개 테마를 입혀 '호남 최대 상권'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는데 주력한다.

민선 7기의 정책도 이어진다. 지난 4년간 동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작한 '인문도시' 조성은 민선 8기에도 단·중·장기 목표를 세워 지속될 예정이다. 동구 인문학당 등 거점시설을 활용한



주민 인문활동 지원 강화를 비롯해 기록화 작업으로 유·무형 유산 보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람 중심·주민 안전'을 위한 노력도 중단 없이 추진된다. '안전'을 구정의 제1 가치로 삼아 감염병 재확산 방지와 인재(人災)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관내 공영주차장 확대,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으로 '안전·안심·안락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편의도 꼼꼼히 신경쓴다는 것이 임 구청장의 계획이다.

기존에 광주·전남 최초로 '여성·아동·고령 3대 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자치구답게 아동과 청소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누구나 삶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민선 8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시책 중 하나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이다. 동구는 올해 문화관광 키워드로 ▲빛·도시 야간관광 ▲문화+첨단기술 융복합 콘텐츠 ▲스마트 관광을 선정했다. 이를 기반으로 '빛의 분수대·빛의 로드 등 도시 야간관광 활성화', '메타버스 가상 미술관 운영 등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추억의 충장축제, 글로벌축제 도약' 등 신규 및 주요 역점 사업 추진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행복지수 '호남권 1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주민 편의와 행복,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이웃 간 정이 넘치는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 4년도 각종 성과와 사업을 추진해 미래 먹거리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전용경기장서 하반기 e스포츠 9개 대회 열린다

8월 광주시리즈·11월 아시아대회

올해 하반기 각종 e스포츠대회가 광주 조선대학교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다. 2020년 12월 개관한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탓에 온라인 대회만 진행됐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규모의 대회와 함께 호남 지역 중고생과 대학생, 직장인,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9개 대회가 총 14회 열린다.

특히 인기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LOL)를 비롯한 배틀그라운드(PUBG), 카트라이더, 스타크래프트, 하스스톤, 피파온라인4 등 다양한 종목의 대회도 포함된다. 전국 규모 대회는 광주이스포츠 시리즈(GES), 이스포츠 대학리그,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 아시아 이스포츠대회 등이다.

광주이스포츠시리즈는 8월, 11월 2회 개최된다. 4개 권역별로 열리는 대학리그는 지난 9일 예선을 거쳐 16일 본선을 통해 지역 대표를 선발하게 된다. 결선은 8월 27~28일 광주 경기장에서 열린다. 이어 제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광주 대표 선발전이 23일 예선을 거쳐 30일 진행된다. 11월에는 아시아지역 유명 프로구단을 초청해 아시아 최강자를 가리는 아시아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다.

광주시 주최로 호남 지역 게이머가 참가하는 PC클럽 대항전, 직장인 이스포츠대회, 호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 리그, 웰린저스 이스포츠클럽 대회도 진행된다.

지역 PC방과의 협업 사업인 PC클럽 대항전은 지역 PC방에서 자체 대회를 거쳐 9월 3일, 12월 3일 2회 실시된다. 도시공사·환경공단·도시철도공

사 등 지역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직장인 이스포츠 대회는 8월 19일, 10월 7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9월 1일, 10월 7일 열리는 웰린저스 이스포츠클럽 대회에는 광주 고등학교 4곳, 호남 특수학교 2곳이 참가한다. 지역 중·고교생을 위한 대회인 중·고교 이스포츠 리그는 중간고사 시점이 끝나는 10월 말 열린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도시공사 무등산 환경정화 활동. 광주시공사는 최근 신입직원들과 함께 무등산 범장골 일대에서 불법투기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했다.

광주도시공사 '지방공기업의 날' 장관상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덕계 이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 시민 서비스, ESG 경영을 통한 사회 혁신, 경영 효율화 제고 등을 통해 모범적 공기업의 모델을 제시한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실제 시민 복합문화 공간인 전일빌딩 245 건립,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비롯한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임신부·다자녀 가정 운임면제제도 시행, 전국 최초 협력업체 인권영향평가 합동점검 1등급 달성, 지역 골목상권 지원, 코로나 극복 시민위로 프로젝트 등 경영의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우수한 성과를 내는 등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민선 8기 시정철학에 맞춰 끊임없는 경영 혁신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대표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재활용품 수거인 안전용품 지원

471명에 쿨토시·안전장갑 등

광주시는 "재활용품 수거인을 대상으로 건강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물품은 폭염에 대비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쿨토시와 손등면에 반사테이프는 안전장갑으로, 각 구청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된다.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사업'은 '광주시 재활용품 수거인 지원조례'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수거인을 대상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6년부터 매년 예산 2000만원을 들여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재활용품 수거인들에게 야광조끼, 방역 마스크, 방한용품 등 안전 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손인규 광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안전용품이 수거인들의 수거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